생사와 열반이 허공꽃과 같아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㉗ 육해일망(六解一亡)

〈원문〉 그때 여래가 사자좌에서 열반승(涅槃僧)을 가지런히 하시고 승가리(僧伽梨)를 거두시고, 칠보로 된 책상을 끌어당기어 손으로 책상 위에 있는 겁파라천이 바친 비단 수건(華巾)을 드시고, 대중들 앞에서 한 매듭을 만들어 아난에게 보이며 물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매듭이라 합니다." 아난이 대답했다. 이에 여래가 수건을 묶어 또 한 매듭을 만들고 거듭 아난에게 물었다. 아난은 또 매듭이라 대답했다. 부처님은 매듭을 여섯 매듭을 만들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여섯 매듭이 같지 아니하나 한 개의 수건에서 만들어졌으니 너의 육근도 그러하여 필경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이 생겼느니라. 여섯 매듭을 풀어버리면 하나라는 것도 없어지느니라. 네가 무시로 마음의 성품이 미치듯 어지러워져 알고 보는 것이 허망하게 일어나고 일어난 허망이 쉬지 않기 때문에 견(見)을 피로하게 하여 진(塵)을 일으키나니 마치 눈동자가 피로하면 허공꽃이 맑고 정명(精明)한 데서 까닭 없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일체 세간의 산하대지와 생사 열반이 다 피로해져 생기는 허공꽃과 같느니라.

〈강설〉 〈능엄경〉 5권의 대의를 '육해일망(六解一亡)'이라고 요약해 말한다. 여섯 매듭이 풀어지면 하나도 없어진다는 뜻인 이 말은 육근(六根)을 매듭에 비유하여 번뇌를 유발하는 육근의 매듭이 풀어지면 여래장묘진여성에 한 매듭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부처님이 열반승을 가지런히 하고 승가리를 거두고 칠보로 된 책상을 끌어당겨 책상 위에 있는 겁파라천이 바친 비단 수건을 들고 대중 앞에서 수건을 묶어 매듭을 만든다. 열반승은 몸의 하반신을 감싸는 속옷이고, 승가리는 대가사를 말한다. 야마천을 겁파라천이라고도 한다. 야마천왕이 부처님께 첩화건이라는 긴 비단 수건을 바쳤다 한다. 차례로 여섯 매듭을 묶어 놓고 아난에게 그것이 뭐냐고 묻는다. 이는 수건은 하나인데 매듭은 왜 여섯 개라고 하느냐고 일부러 넌지시 묻는 것이다. 매듭은 여섯 개가 묶였지만, 수건을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맺은 차례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여섯 번째 매듭까지 생긴 것이다. 여섯 번째 매듭을 첫 번째 매듭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여섯 매듭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한 시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맺은 차례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섯 매듭이 차례로 생겼지만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한 장의 수건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육근(六根)도 그러하여 필경 같은 것 가운데서 필경 다른 것이 생겼다고 하였다. 낱낱의 육근이 그렇다는 말이다. 본래 여래장묘진여성은 같은데 육근이 제각기 달라진 것이, 수건 한 장에 여섯 번의 매듭이 맺힌 것과 같다는 말이다. 여기에도 하나에서 왜 하필 여섯 매듭이 맺혔느냐는 속뜻이 숨어 있다. 여섯 매듭이 되어 이 매듭은 저 매듭이 아니라는 등 시비가 일어날 소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여섯 매듭을 그대로 두고는 하나로 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매듭을 다 풀어 매듭이 남지 않게 되면 "이 매듭이다. 저 매듭이다" 할 피차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라고도 할 것이 없으니 매듭이 다 풀어지면 아무 시비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육해일망(六解一亡)의 대의가 이것이다. 여섯을 의지해 하나가 있으며 여섯이 없으면 하나라는 것도 없다는 뜻이다.

여섯 매듭이 육근에 비유된 것이라고 말해 왔으나 매듭을 맺거나 푸는 순서로 말할 때는 육근에는 생기는 순서가 없고 푸는 순서가 없으므로 여섯 매듭이 하나 하나 육근과 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육근을 통해 일어나는 작용이 지견(知見)인데 부처님이 아난에게 '네가 무시로 심성(心性)이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지견을 허망하게 일으켜 견(見)을 피로하게 하여 진(塵)을 발한다고 하였다. 진을 발한다는 것은 번뇌를 일으킨다는 말이다. 마치 눈동자가 피로해지면 맑고 밝은 데서 까닭 없이 허공꽃(空華)이 생기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래장묘진여성에서 육근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체 세간의 산하대지와 생사와 열반이 모두 눈이 피로하여 생긴 허공꽃과 같다고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소리·호흡·언어경로 통한 보시바라밀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㉗ 보시바라밀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차이를 느껴본다. 중간의 적멸처는 무겁게 느껴지고 양쪽의 적멸처는 가볍게 느껴진다. 그 차이를 지각하면서 중간 적멸처에 머물러서 양쪽 적멸처의 상태를 비추어보고, 양쪽 적멸처에 머물러서 중간 적멸처의 상태를 비추어본다. 소리 경로에서 세워지는 두 개의 간극을 인식하게 되면 듣는 의식이 제도된 것이다.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다. 들음으로써 행하는 보시바라밀이다.

간극을 활용해서 호흡 경로를 제도한다. 코의 간극은 미심과 중황, 중황과 옥침 사이에서 세워진다. 미심과 중황 사이에서 인식되는 공간 감각과 중황과 옥침 사이에서 인식되는 공간 감각으로 호흡 경로의 간극이 세워진다. 나선 호흡으로 미심에서 옥침까지 숨을 들이쉬면서 미심과 중황, 중황과 옥침 사이의 공간을 들여다본다. 미심과 중황 사이에서는 텅 빈 공간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중황과 옥침 사이에서는 가볍게 억제된 느낌을 감각적으로 인식한다. 반복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두 영역이 내포하고 있는 서로 다른 공간 감각을 비교해 본다. 서로 다른 감각이 뚜렷하게 구분되면 두 감각이 서로를 비춰보게 한다. 들숨의 자극감이 중황 자리에서 끊어지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면서 중황 자리에서 드러나는 맑은 공간을 인식한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면서 미심과 중황 사이의 텅 빈 공간을 인식하고 중황의 맑은 상태를 인식한다. 중황과 옥침사이에서 억제된 느낌을 인식한다. 세 영역이 내포하고 있는 서로 다른 공간 감각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들여다본다. 중황을 중심으로 삼아서 미심 쪽과 옥침 쪽을 함께 바라본다. 맑은 공간이 텅 빈 공간과 밋밋한 공간을 양쪽으로 마주 보고 있으면 코의 간극이 세워진 것이다. 코의 간극이 세워지면 호흡 경로가 제도된 것이다. 코의 간극을 주시하면서 호흡을 반복한다. 그러면서 인식되는 안팎의 경계를 비춰본다. 이것이 호흡 경로를 통해 보시 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다.

간극을 활용해서 언어 경로를 제도한다. 언어 경로의 간극은 호흡과 발성을 통해 세워진다. 나선 호흡으로 백회에서 중황까지 호흡을 들이쉰다. 백회와 중황 사이의 공간에서 빽빽하게 억제된 느낌을 인식한다. 마치 기둥이 세워진 느낌이다. 이 기둥을 무념주라 한다. 'ㅈ' 발성으로 시상 3뇌실을 길게 울려준다. 혀의 중간부위를 활용해서 입천장을 "지~~~~!" 하면서 길게 울려준다. 발성이 끝난 다음에 3뇌실에서 형성되는 텅 빈 공간과 생각이 쉬어진 자리를 함께 인식한다. 호흡을 들이쉬면서 무념주를 인식하고 발성이 끝난 다음에는 텅 빈 공간과 무념을 함께 인식한다. 무념주와 텅 빈 공간, 무념처가 함께 인식되면 언어 경로의 간극이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언어 경로가 제도된 것이다. 무념주와 텅 빈 공간, 무념처를 활용해서 경계들을 비추어본다. 이것이 언어 경로를 활용해서 보시 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다.

간극을 활용해서 몸의 감각을 제도한다. 안 몸은 뇌와 척수에서 공간 감각으로 인식한다. 바깥 몸은 피부에서 촉감을 통해 인식한다. 몸의 간극을 인식한다. 살갗 수행으로 바깥 몸을 인식한다. 살갗 호흡과 살갗 관법으로 말초신경을 순화하면서 바깥 몸의 텅 빈 감각을 인식한다. 나선 호흡으로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안 몸을 인식한다. 그런 다음 뇌와 척수를 관통하는 무념주의 기둥을 인식한다. 무념주의 기둥과 살갗의 텅 빈 감각이 서로를 마주 보게 한다. 안 몸과 바깥 몸 사이에서 간극이 세워지면 몸의 감각이 제도된 것이다. 안 몸과 바깥 몸, 간극을 활용해서 경계들을 비춰본다. 몸의 감각을 활용해서 보시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㉗ 지혜의 실상

사실은 전할 게 없다

침묵만큼 좋은 지혜는 없다. 그러나 방편으로 사용하기에는 틈이 너무 없다. 그렇다고 없는 문을 만들 수도 없다. 난처하지만 난처하다고 할 수 없어 입을 열어버린다. 그리고 그에게 말한다. "네가 바로 부처다" 세 사람이 마주한다. 그가 어리둥절한 사이 엉뚱한 자가 낚아채 버린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를 쫓아버린다. 언제나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진다. 두 사람이 마주하기가 쉽지 않다. 항상 아닌 그 자가 먼저 나타나 훼방을 놓는다. 그런데 훼방을 놓는 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자를 자신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는 실재하는 실체가 아니니 쫓아낼 수도 없다. 그 스스로가 나타나야 한다. 물질과 느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가 재빠르게 듣고 알아버려야 한다.

쏜살같이 물질에 속한 어떤 이름과 모양도 내가 아님을, 느낌에 속한 어떤 자극도 내가 아님을, 의식 속에 피어나는 수많은 분별심도 내가 아님을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 처음으로 행위 없는 평온함에 안주한다. 말을 하지 않는 침묵도 아니며, 몸을 움직이지 않는 선정도 아니며, 대상이 사라지는 해탈도 아니다. 어디에도 속하지도 떨어져 있지도 않은 평온이다. 구름이 걷히고 나면 해가 나타나듯 본래 있는 밝음이다. 무엇을 더 보기 위해 더 밝힐 필요가 없다. 개체의 주관적 세계가 사라지고 인연 그대로의 세계가 나타나면, 그 속에는 주인도 객도 없이 그저 빠르게 흐르는 허상의 흐름만 있을 뿐이다.

"일체 외물의 자성은 모두 자성이 아니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든 혹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사실상 모두 얻을 수 없음을 아는 것이네. 그것이 얻을 수 없음을 알기에 안팎의 일체 경계상에서 지혜가 빛나며 환영이 생겨나지 않네. 이로부터 차례대로 삼해탈문을 거쳐 이른바 지혜를 증득하지만 그것 역시 얻을 수 없는 것이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 너무 진지하게 보거나 급하게 서둘러 행하거나 악착같이 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허상에 묶인 삶을 살게 된다. 허상은 가질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애만 태우는 짝사랑 같은 것이다. 허상은 상상하면 현실이 될 것 같지만 온다고 온 것이 아니고 갔다고 간 것이 아니다. 상상이 끝나고 나면 허무함만 남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허상이기 때문이다. 나라는 것을, 나의 것이라는 것을, 나의 자아라는 것을 올바르게 성찰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바르게 보아야 할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눈병 탓이다. 태어나서 자신이 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병에 걸려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오온이 보고 듣는 모든 감각기관과 인식작용들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일체인 십이처가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사실적이다. 이때 사실이라는 기준은 무엇일까? 만약 그 일어나는 순간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오온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일어난 일에 대해 분별한다면 그것이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만약 거짓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또 다시 알음알이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거짓은 분별하여 생각하여도 거짓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일들에 선택하고 판단하는 자에 대한 앎이다. 이 자에 대한 앎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듯하지만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이유는 자신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마음 때문이다. 자신은 눈병과 귓병이 있어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 아무리 알려주어도 소용없는 일이 된다. 그는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믿는다. 상대가 일러주는 말과 자신이 판단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가르침의 어려움은 눈병과 귓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지 사실을 사실로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은 전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명산대찰의 수천만원
의 시설들! 본사 견본과 법당서 소리 비교시 죄송하지만 한결같이 장난감 소리 차이!
▣ 그 이유 : 본 품은 디지털 염불전문시스템으로 특수제작 (기존품들과 부속이 전혀 다름)
▣ 특징 : 다루기 1초 / 고장없음 / 현장 기존시설가에 1/3
본 제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오직! 소리만 비교만 해보는 조건으로 전화하시면 반드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에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및 핀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충전식 각종 방생용 전문판매, 시설가격 190~사찰 규모따라 비용 추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